

민족주의와 젠더

- 「위험한 여성(Dangerous Women)」

안숙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처럼 비실존적 문구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현장을 공식석상에서 외워야 할 때마다 나는 늘 속이 거북했다. ‘우리’는 누구이며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인지. 뿐인가. 고려 신종 3년(1200년) 탐관오리에 불만을 품고 공사노비들이 항거한 진주민란이 일어났는데 관군들이 토벌에 실패하자, 진주 백성들이 의거로써 1년만에 평정하였다고 기록된 채 전해진다. (금성판 국어 대사전, 1991) 이 기록에 의하면, 노비는 백성이 아니다. 또한 내란을 일으킨 노비들을 진압한 것은 백성들의 ‘의거’ 였다니 지금도 이런 역사가 공식 출판물을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배제와 동일시의 논리로 그토록 오랜 동안 민족이란 기호에 일고의 의심의 여지가 용납되지 않던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허구를 벗기는 작업이 21세기 초엽 한국 인문학의 중심화두가 되고 있는 듯하다.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우리를 옥죄었던 민족이란 큰타자(Other)가 남북 통일의 당위성을 거론할 때나 외세에 대항할 명분으로 비판적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

던 관행을 깨고 공적 담론의 도마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덕분이다. 포스트모던시대 역사학에서 마이너리티의 역사, 아래로부터의 역사, 미시사적 접근 같은 메타히스토리가 각광받는 것도 역설적으로 근대의 위기, 기든스의 이른바 인위적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이 야기시킨 데 있다. 이는 동시에 헤겔의 이른 바 역사의 총체성에 대한 균열을 의미한다.

국내 학계의 사정은 이러하지만 이미 해외 한국 교포 학자들에 의한 민족주의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축적되기 시작했고 그 선구적인 업적 중의 하나가 주로 북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들인 학자, 예술가 11명이 참여해 12개의 토픽들로 짜여진 『위험한 여성』(일레인 김, 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삼인, 2001)이다. 이 책은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의 폭넓은 주제나 다양한 주제와 논문, 사진, 인터뷰 기사 등 다양각색의 장르를 아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책 이름 그대로 국내외 독자나 페미니즘 연구자들에게 민족주의와 젠더 문제를 도발하려는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필자들이 언급했듯이 이 책은 제 3세계 페미니스트들이 종래 제 1세계 페미니스트들에게 원자료 제공자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페미니즘의 북미,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식 생산의 서구 편향을 시정하고 동아시아 페미니즘의 위상을 확립하려 한 시도가 높이 살만하다. 특히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가부장적 사회가 민족주의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반민주적인 담론과 문화, 제도를 정당화한 것을 비판하고 한반도를 영토로 단일민족 신화에 사로잡힌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 담론의 장을 해외 이산 한국인 커뮤니티에로 시야를 확장한 점이다.

고국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 되어도 문밖만 나서면 긴장하게 된다는 외국 생활에서 온갖 난관을 극복해 가며 각자의 전공에 따라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이들 해외 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번역판을 읽어 불만스러운 대로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최정무 교수의 논문 「한국 민족주의와 성차별구조」는 전후 한국에

서의 자신의 유년기와 처녀시절 이후 미국체류 경험을 토대로 후기 식민주의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코메리칸 여성 지식인의 고뇌가 알알이 뻗어 나온 두 가지 주된 동력을 일본 식민지 경험과 냉전시대 미,소 강대국에 의한 국토 분단에서 찾고 있다. 아쉽게도 최교수의 논문은 포스트콜로니얼이라는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지만 외부(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자들) 영향보다 국내내 민족주의의 파행성을 비판하는데로 경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일제 식민지 텍스트인 30년대 이상의 「날개」와 60년대 남정현의 「분지」, 신동엽의 「풍경」같은 문학작품에서부터, 영화「서편제」, 연극「소리굿 아구」, 88 서울올림픽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공식적으로 놓고 독해한 결과, 논점이 흐려지는 감을 받았다. 문학, 영화같은 예술작품이야 비유적 해석도 가능한 게 아니냐고 할는지도 모르나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 논거가 미약해지는 법이다. 아마도 국내에서 독일문학과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건너가 인류학을 공부한 다채로운 최교수의 학문적 이력이 복잡미묘한 여성문제를 연구하는데 큰 이점이면서도 논문의 과욕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앤 맥클린턴도 후기 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주의(colonialism)와 딱 부러지는 경계가 있다기보다 모호한 개념이라고 하였듯이 그럴수록 분석 대상이 역사의 어느 시기를 전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그녀는 개화 계몽기 이래 남성 민족주의자들은 여성을 민족의 어머니로 한정시켰다는 점을 비판하고 그런 맥락 아래서 1920년대 반짝했던 여성해방운동의 체현자였던 신여성들의 파탄이 불가피했음도 통찰했다. 사실, 단재 신채호로 대표되는 개화 계몽기 민족주의자들에게 개인주의는 민족주의의 적대개념이었으며 그들 민족주의자들에게 오직 我/非我が 존재할 따름이었다. 개화기 민족담론이 불붙기 시작한 때는 일제 강점으로 국권을 상실한 민족 부재 상태에서 민족의 존재를 외쳐야 하는 비장함이 있었고

한국 전쟁 때는 민족의 원초적 구성 단위인 가족 이산이 파천황의 기세로 급류에 휩쓸리던 터였다. 그런 까닭에 고미숙(『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도 민족주의는 철저하게 인종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민족주의와 젠더는 갈등이 불가피했다. 당대의 신여성 나혜석이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인권선언이나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사회 모랄을 비판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주장한 것이라든지, 김명순이 그녀의 시에서 “조선야, 부모야 너희가 원수로다.” 라며 민족과 가부장제를 공격한 데 대해 남성들이 얼마나 냉소적이었는지 김동인과 염상섭, 채만식 등의 소설에 여실히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신여성의 몰락은 최고수의 주장대로 <그들이 모성성을 망각하고 식민지 지배 체제의 후원을 받은 반민족주의> 때문이라기보다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로서의 그들의 개인주의 지향성과 섹슈얼리티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근대의 미운 오리새끼라는 페미니즘이 민족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공동의 태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민족주의가 젠더화된 원인으로 가부장사회 전통과 일제 식민지에 이은 한국전쟁의 특수성만 거론하던 것이 지금까지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에 맞선 구체적 여성해방의 실천을 보려 하지 않고 만약 한국 민족주의가 젠더여성에게 피해만 입혔다면 여성은 수동적일 뿐, 역사의 주체로서 아무 역할도 못했다는 면책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보다는 여성이 민족사에 기여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자율적인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 되는 것이며 그 증거가 20년대의 나혜석, 김명순이나 30년대의 백신애, 강경애와 같은 여성작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개인사, 여성운동 업적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민족주의가 남성의 진유물인 양, 여성을 배제했던 남성지식인들이 일제 식민통치에 야합하고 변절해갈 때도 이들 여성작가들 특히 해방 후에 죽은 나혜석은 평생 친일하지 않았으니 이를 결코 과소 평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역사적 특정 시기에 일어난 일을 오늘날의 잣대로 논리화하는 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최교수가 민족담론의 역사적 조감을 간단하게라도 기술했다라면 시대별로 변별성을 갖는 민족담론의 차이에 따라 젠더 여성의 주체성도 편차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후기 식민주의 분석은 하나의 카테고리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이후에는 억압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에노 치즈코는 포스트콜로니얼의 해결책은 카테고리의 부정이 아닌 **카테고리의 복합화**, 그 길만이 단일 카테고리로 회수되는 개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역, 박종철출판사, 1999) 여성도 마찬가지다. 민족주의가 악이라는 것은 역사에 의해 사후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시대를 살던 개인이 역사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현대인의 부당한 단죄이다. 최교수의 글을 읽으며 역사학엔 이론이 없고 사회학엔 역사가 없다는 얘기를 반추해 보게 된다. 저자가 17세기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로 끌려갔던 환향녀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대개 하층계급에 속하는 여성들>로 범주화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청인들은 실상 인질의 속량값이 높은 사대부집 여성들을 더 선호하였고 이 때 인조 반정공신 김류의 첩과 딸이 끌려가자 그는 1천냥을 속환 댓가로 지불했다 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산성일기』, 『속잡록』) 병자호란이 끝난 뒤 그렇게도 오랑캐에게 굴복한 민족적 수치를 **운운하던 사대부들** 사이엔 청인들과 혼인을 맺으려는 풍조가 일어나 청 태종은 언어도 안 통하는 조선 여인을 많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외교문서를 보내고 있다. 당시 권력담당 세력이었던 서인들을 비롯한 지배층은 짐짓 북벌정책으로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국제결혼 추진/ 환향녀 소외라는 섹슈얼리티의 이중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의 말대로 환향녀를 박대한 것은 남성중심적 순결이데올로기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제결혼을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는 불순한 혼혈의 원인제공자로 간주, 창부형 여성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승숙 교수의 「민족공동체 만들기」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라는 시간 제시가분명한 역사의 시점에서 민족담론의 생산에 관여한 남성 중심주의를 고찰하고 그것을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 state nationalism)로 일컬으며 비판한 글이다. 문교수도 박정희 이래 군사독재 정부의 민족주의가 서구화를 배척하는 전통지향성에 은폐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국책과목인 국어, 국사, 국민윤리와 같은 교육 과정을 분석한다. 박정희는 산업근대화로 국가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에서 자본주의 종주국의 모델을 지향하면서도 그에 따른 서구화는 개인주의적이고 반전통적이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는 개화기의 민족담론을 되풀이 하듯 영웅주의에 빠져든다. 문교수는 이들이 민족의 유구한 기원에 집착하고 국조를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성은 단군의 어머니 웅녀신화에서 보듯 민족의 자궁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료타르가 거대서사의 종말이 포스트모던 사고라고 하였듯이 우연이 역사에 개입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의 상황을 목도하며 진보사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자민족중심주의가 제국주의의 패권주의로, 다시 식민주의로 가는 도정이 되어선 안 된다. 그로 인해 여성이 무성적(asexual)인 어머니로 식민지 민족해방의 전사를 재생산하거나 내전으로 인구 결핍이 우려되어 민족 존속의 자궁 구실에 구속되는 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해 온 전형적인 기제였다.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모성론은 더욱 강조되었다고 안나 다빈은 그녀의 『제국주의와 모성』에서 말한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1969년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고 민족중흥에 매진하고자 하더니 국민이 그들의 혁명공약대로 기아선상을 벗어나 굶주림을 면했다고 판단한 순간, 갑자기 유교 이념인 충효사상교육에 부심하였다. 겉으로는 한국적 유교 전통인 체 포장하면서 내심 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부추기기 위해 충효사상의 부활을 기도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죽은 그녀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20대의 나이로 중년부인의 헤어스타일에 한복차림으로 새마음총재라는 관변단체장을 맡아 충효사상의 전

도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정치적 넉센스에 안스러움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10월유신으로 가는 박정권 말기의 책략이 시대착오적인 충효 사상 고양이었던 셈이다. 문교수는 박정희가 말하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군국주의적 한국인이라 꼬집으면서도 군인출신 대통령의 민족의식이 세종로에 도로 이름과 국민정서에 걸맞는 세종대왕상을 제치고 자기가 존경하는 이순신장군상을 세우면서 성웅이란 낯선 조어로 국민을 당혹하게 한 것이나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을 내세워 전통사상의 고취에 열을 올린 것 등이 박정희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인데 거기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문교수는 또 화랑도와 관련, 선교를 시베리아 무속의 한국적 변용으로 보고 도교와 분리시키고 있어 의아스럽다. 유, 불, 선 3교가 종합된 것이 한국의 풍류이고 이 때 선교는 도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겐 주자학이 익숙한데도 굳이 이를 신유교(new Confucian)로 명명하는 것은 원문인지, 번역자의 탓인지 모르겠다. 간혹 한국인이 외국어로 번역된 동양고전을 읽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얼마 전 한국에서 발표(한국여성학회, 서강대, 2001. 11)된 어느 여성학자의 논문에서 『주자가례』(Family Rituals)를 『가족 제례』라고 번역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어의 의미상 가족제례라면 주로 제사만을 의미하게 되어 가정의 갖가지 의례를 담고 있는 『주자가례』의 내용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느꼈다.

일레인 김의 「남성들의 이야기」는 한국남성들과 여성들을 인터뷰한 것을 자료로 한국의 남성만이 가부장제의 생산자가 아니라 여성들도 그런 제도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것을 밝혀준 흥미있는 논문이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돋보인 점은 계급에 따른 젠더화, 곧 젠더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늘처럼 계급과 겹쳐있다는 진단이다. 김교수가 남성들을 단결시켰던 가부장제가 여성끼리 서로 반목, 경쟁하게 한다고 통찰하며 남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아내들의 지위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스스로를 착취하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순간적인 위안을

위해 직업여성이나 술자리를 갖는다고 지적한 것은 한국 페미니즘의 과제로서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외국인으로 짧은 한국 체류기간 중에도 동분서주하며 현장을 찾아 인터뷰를 한 김교수의 노력이 적지않이 수고로웠을 줄 짐작하면서도 이런 조사연구의 유의미성을 추출하는 사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족을 덧붙이고 싶다.

양현아 교수의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은 대중매체에 나타난 위안부 문제의 재현을 검토한 글이다. 국내의 대표적 언론인 동아일보와 진보적이라는 한겨레신문에서 1992년 1월 서울 방산초등학교의 학적부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학생의 명단이 보도되자 언론과 시민들은 민족적 수치라며 분개하였다. 그 전 해(199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인 김학순 할머니의 두 사람의 증언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정작 증언한 위안부 출신 여성은 ‘민족의 수치라고 떠드는 언론이나 일반인들에 대해 문제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는 점을 들어 양교수는 이 사건을 역사적 과거 청산과 민족적 자존심 차원으로 기사화함은 감상적 민족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성애화되고 민족주의화된 섹슈얼리티 관점으로는 군 위안부 여성 생존자들을 더욱 주변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맞는 얘기다. 외국인 남성에 의한 성적 폭력의 결과 피해 당사자 위안부 여성이 오히려 사회적 소외를 강요당했다면 누가 그녀의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가. 양 교수는 군위안부들이 말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침묵하게 한 데는 정조관념이 문제라는 것인데 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한국 사회가 스피박의 말대로 서발턴(subaltern)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국 사회에 위안부 여성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성 노예 경험을 공개할 수 있게 되기까지 국내 여성운동가들(윤정옥을 비롯한 정신대 대책협의회 기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분명 우리 곁에 존재했건만 공적 기록에 묵살당한 군 위안부 여성의 증언이야말로 ‘아래로

부터의 역사 요, 구술사(oral history)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캐서린 H.S. 문교수의 「한미관계에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는 외국군 기지촌 여성의 매춘 실태를 한미 군사적 세력 불균형문제와 관련시켜 연구한 글이다. 기지촌 매춘경력의 여성운동가 김연자씨를 인터뷰한 내용은 군대 매춘 여성의 현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반 매춘의 형태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병사들로선 기지촌 여성이 인간이고 한국인이라는 의식보다 주둔군의 우월감은 있겠지만 한국여자를 돈으로 산다는 게 양국간의 합의된 기지촌 제도에 따른 것이지 미국이 성의 상품화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은 바로 인종과 계급, 젠더가 민족주의와 부딪치는 첨예한 현장이다. 여기서 매춘여성들은 한국정부 관리들에 의해 기지촌 정화사업이란 미명하에 외국군인 앞에서 성병검사를 받았다는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치욕을 견디며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교육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부담에 힘겨워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정부 관리들은 매춘 여성들을 민간외교관이라는 등, 애국자로 추켜세우기도 한다. 성병검사는 신체 규율을 통한 여성 억압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여성을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행위가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딸을 팔아 눈을 뜨는 심봉사의 맹목성과 다를 게 없다. 민족의 딸을 팔아 민족을 지켜내겠다면(국가안보) 그런 민족주의야말로 허위의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기지촌에서의 '아가씨 모임' 같은 것을 결성하여 직접 미군부대 앞에서 매춘여성들의 화대를 깎으려는 미군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한다니 이들 하위계층 여성들이 한국정부보다 대미교섭에 당당해 보인다.

김현숙 교수의 「민족의 상징, '양공주」도 캐서린 문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기지촌 매춘여성문제가 주제이다. 김연자씨는 이 글에서도 현장 경험자로 등장한다. 김현숙 교수는 '민족주의적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비판적 지식인 여성운동가들의 탈식민적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 이들은 계급과 성을 제국주의의 구조적 지배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며 이런 틀에선 한국인들은 미국이라는 억압자의 희생자요, 단일화된 주체로 수렴된다고 했다. 이 논문은 특정 텍스트들이 어떻게 양공주를 호명하는가를 위로부터의 시각을 가진 중산층 민족주의자와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가진 양공주 자신들의 입장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안정효의 『은마는 오지 않는다.』와 강석경의 『낮과 꿈』 그밖에 진보적 민족주의 그룹에서 발간한 텍스트들 그 중에서도 미군 병사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양공주 윤금이사건을 다룬 언술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은마.....』의 언례, 『낮과 꿈』의 순자, 실존인물 윤금이 이들 양공주들은 앞서 언급한 텍스트에서 모두 민족의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기에 외국남성에 의해 유린된 한국인 여성 윤금이의 몸은 제국주의적 폭력의 물적 증거로서 피해당한 남녀 한국인 민족공동체의 은유가 된다. 민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 사이의 헛돌기에서 한국인들은 하나의 단일한 주체로 균질화되고 만다는 점을 김현숙 교수는 분석해 보인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제목은 저자의 관점이 양공주가 민족 수난의 상투적 상징으로 해석되는 텍스트들을 문제삼아 양공주를 희생자가 아니라 능동성, 주체성, 자율적 인간으로서 인식해야 함을 제기하고자 한 의도(따옴표로 기표화)와는 달리 마치 저자 스스로 양공주를 민족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오독될 소지가 있다. 나도 처음에 그런 인상을 가졌으니까.

박유미 교수의 「노동하는 여성과 집단적 주체의 존재론」은 현기영의 소설 『바람타는 섬』(1989)을 분석한 논문이다. 현기영은 이 작품에서 1932년 1만 7천명의 제주도 잠녀(해녀)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권력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봉기한 사건을 사실적 동기화로 그려냈다. 투쟁에 가담하기 위해 잠녀들은 저고리의 웃고름 대신 난추를 달아 전통적인 여성상과 단절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작중의 잠녀들은 남성 인물들에 의해 교육받고 남성들은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네에게 있다고 말함으로써 잠녀들의 역사적 주체성이 불완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평론가 최원식이 이 소설의 잠녀들에 대해 〈등 푸른 생선〉으로 비유한 것은 여

성을 비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여성비하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최원식의 논리적 허점이 다른 곳에 있을지언정 등푸른 생선이 환기하는 여성 이미지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을 여성으로, 지식인은 남성이고 그들이 언어를 독점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적인 이분법이어서 이런 발상을 가진 저자(박교수)와 국내독자인 나는 벌써 문화적 차이를 발견한다. 새삼 우리에게 민족주의의 정체가 문제되는 순간이다. 무엇보다 박교수는 현기영이 젠더, 계급, 제국주의와 더불어 이주성(imigrancy)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두려고 했다. 후기 식민주의 사회에서 이주성은 노동의 전지구화 시대의 이슈이지만 현기영이 과연 후기 식민주의적 이주성을 논의한 것인지는 현재의 나로선 단언할 계제가 아니다.

박현옥 교수의 「해방과 이상」은 만주의 조선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공산주의자와 기혼 농민여성들의 여성운동을 비교함으로써 맑시스트 페미니즘이 민족주의와 어떻게 타협해 가는가를 다루었다. 이 논문 역시 구체적인 시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제 강점기라고만 짐작될 뿐이어서 아쉽지만 남한이라는 지정학적 국경을 넘어서지 못했던 내 인식에다 만주 조선족 여성들의 삶을 한국인의 커뮤니티에 포섭하는 학문적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돼 주었다.

그밖에도 이 책에는 민영순 교수의 포토 에세이 「천족간의 거리」와 「어머니의 집」, 강현이 교수의 「고국을 다시 기억하기」, 헬렌 리의 「이상한 감정」이 실려 있는데 교포 예술가들이 시집, 비디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로 갈등하는 인물들을 집요하게 천착한 논문들이다. 나는 그 분야의 문외한이려니와 분석 대상 텍스트를 접하지 못해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 우에노 치즈코는 번역이라는 문화 소개 사업에는 반드시 선별 과정이 포함된다고 하였듯이 영문판인 「위험한 여성」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젠더상의 민족주의가 더 이상 위험한 여성들이 아니라는 방증이겠다.

본고가 최정무 교수의 논문에 지면을 많이 할애한 데는 최교수의 글이 민족주의와 젠더라는 책 전체의 주제를 리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의 문제점 또한 압축해 놓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한 마디를 더 보태자면, 저자들 스스로 인정한 국내 문헌, 자료 섭렵의 한계 외에 더러 과격한 수사, 예컨대, <남한의 군사정권이 추진한 자본주의 근대화 계획은 식민종주국의 물질적 성공을 열심히 흉내내 뒤쫓아 가려는 시도였다.>(p.28)라거나 군 위안부 문제를 <완벽하게 숨겨오다가 1991년에>(p.29)를 들 수 있지만 그런 약점은 이 책의 성과에 비해 정말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나로선 서평을 쓴다기보다 이 책의 저자들로부터 많은 지적 자극을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자에게도 부탁이 있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원문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것과 논문 발표 시기를 밝혔더라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지 않았을까 싶다. 앞으로 국내 관련 학자들과의 교류와 학제적 연구를 위해 이 책이 널리 읽혀졌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 필자 :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